

특류세평 양성덕 이과대 교수·수학과

##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는 기초과학 축제’를 마치며



지난 8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 이과대학 주관으로 초중고 생과 일반인을 초청하여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는 기초과학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과대학장으로서 행사를 총감독한 필자로서는 행사가 다들 수족 행사가 잘 진행될까, 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적지 않았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 갑작스러운 폭우 등의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휴~.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행사 준비와 진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이과대학교 수님들과 직원들,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행사 후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연구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다는데 혹시나 행사 때문이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UN이 올해를 ‘International Year of Basic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정한 데서 시작하는데, 잘 보면 사실 무게중심은 ‘기초과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UN은 2015년 17개의 지속가능목표를 지정하는 걸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을 지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부

와 공동으로 ‘대학과 함께 하는 2022 UN 세계 기초과학의 해’ 선포식을 지난 4월 19일에 가졌으며 전국 27개 대학의 자연과학대학을 통해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은 그 중 서울권 7개 대학의 총괄대학으로서 이 전 세계적, 전국적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왜 기초과학이 강조되는 것일까? 기초과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그럴까? 이에 대한 답은 전 인류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택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해법에 대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유추할 수 있다. 세계적 전염병, 기후 변화, 에너지 부족,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과 같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아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문제의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초과학인 것이다. 여기서 기초과학이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및 그와 연관된 분야를 말한다.

비단 기초과학만이 아니라 그 어떤 분야에도 특정 응용을 염두에 둔 연구자도 있고 어떤 응용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유용하리라고 믿으며 연구하는 사람도 있으며, 응용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기초과학 연구자는 응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동으로 자연에 대하여 이제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걸 목표로 연구하는데, 그중 극한의 경지까지 앎을 추구하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

했던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지식을 선사하며, 이런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근본 지식의 발전은 인류 전체의 삶에 진보를 가져온다. 또한 그러한 진보는 해당 연구자나 기업,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적용되어 범인류적, 범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 중의 하나가 1961년 발견된 mRNA로부터 2020년 코로나 백신의 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관련 연구들은 처음엔 ‘왜 이런가?’라는 호기심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코로나 백신의 개발이라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내년에도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는 기초과학 축제’가 있을까? 내후년에는? 그 후에는? 창업보다 수성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데 행사 개최도 그런 것 같다. 돌이켜 보면 필자가 재직 한 지난 이십 년 동안에 교내 과학 관련 축제로 ‘KU-Science Research Festival’, ‘KU BT HT Research Festival’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개최되고 있지 않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며 요즘같이 많은 것들이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는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기초과학 축제를 기획할 당시부터 이 행사가 매년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는 있었지만, 막상 행사를 진행해 보니 계속 이어 나가기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올해 행사는 무사히 마무리하였으니 조금 쉬고 다음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련다.

‘냉전’(冷箭)은 숨어서 쏘는 화살이란 뜻으로 고대신문 동인이 씀니다.

冷箭

좋은 대학에 가면 뭐가 좋은 거냐고 학생이 질문했다. 평소 공부 내용 외의 질문은 하지 않던 조용한 학생이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대학교, 하나의 자격증 같은 거야.” 가볍게 답하고 재빨리 수업을 이어 나갔다. 당황스러웠다.

신입생 시절 나는 고려대학교가 모든 것을 이뤄줄 줄 알았다. 정확하게는 ‘고려대 졸업장’이 말이다. 돌이켜보면 어릴 적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교육열도 이 생각에 한몫했다. 적어도 내가 살던 지역의 분위

를 시작한 후의 현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대가로 늦은 나이에 겨우 취업했다. 입사한 회사는 1지망이 아니었다. 아직도 어머니는 가끔 전화기 너머로 말씀하신다. “엄마는 대학 졸업장이 전부인 줄 알았어.” 어머니의 책임이 아닌데도 말이다.

사회에 나와보니 졸업장은 더욱 자격증에 불과했다. 졸업장 없는 동창의 창업 성공 후기가 들려왔고 거래처에선 졸업장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어떤 이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재테크에 성

## 좋은 대학 졸업장의 의미

기는 그랬다. 어느 집 자녀가 소위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동네에 현수막이 걸리곤 했으니까. 순종적이었던 내게 좋은 대학 졸업장은 절대적인 만능열쇠처럼 느껴졌다.

안타깝게도 졸업장은 새로운 시작점이자 하나의 자격증에 불과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주변에서 진로 고민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싶었나 보다. 그때까지도 졸업장은 내게 절대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뒤늦게 취업 준비

공해 책을 출판했고 또 어떤 이는 자영업의 대가가 돼 잘나가는 사업가가 됐다. 졸업장과 관련 없는 성공들이었다. 공교롭게도 본교에서 함께 취업 스테디를 했던 이에게선 취업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선생님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아요?” 며칠 후 거짓말처럼 다른 학생이 물었다. 이번엔 당황하지 않고 답했다. 좋은 대학이 모든 것을 이뤄주지는 않지만 좋은 시작을 위한 토양이 돼줄 것이라고, 그 시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자고.

(Do Dream)

### 카메라사계



**그들의 염원은 밝게 빛난다** 1897년,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염원을 담아 독립문을 완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뒤, 우리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어두운 나날을 보냈다. 백여 년이 지난 2022년, 후손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이 있어 어두운 밤에도 독립문은 밝게 빛난다. 김태윤 기자 orgnmind@



高 FLIX

高FLIX는 고대인이 애정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소설보다 더 이상하고 극적인 현실의 삶



〈스트레인저 댄 픽션〉  
별점: ★★★★★  
한 줄 평: 역사적 죽음과 일상적 삶의 대비

영화의 주인공인 해럴드 크릭은 손목시계와 함께 모든 일상을 숫자로 정형화하며 살아간다. 첫술질 몇 번, 몇분에 타야 하는 버스 등 그의 매일의 삶은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손목시계처럼 흘러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해럴드의 머릿속에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는 해럴드의 일상을 모두 꿰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감정을 그보다 더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의 앞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한다. 마치 그녀의 말대로 해럴드의 삶이 이뤄지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날, 그녀의 목소리가 해럴드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죽음을 원치 않는 데도 말이다.

목소리의 주인은 소설가 캐런 아이펠로, 소설 속 주인공을 죽이며

소설을 새드엔딩으로 끝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지금 해럴드 크릭이라는 소설 속 주인공을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고 있다. 해럴드는 캐런을 만나 죽고 싶지 않다 말하지만, 소설의 재미와 극적 긴장감을 위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대답만 듣는다. 캐런의 소설이 해럴드의 죽음으로 끝날 것인지는 영화의 결말에 등장한다.

어딘가에 있을 범한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들도 결국 현실적이지 않은 극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작가가 주제의식을 드러내며 글을 긴장감 있고 흡입력 있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과 상실, 고난 등 소위 우리가 ‘갈등’이라고 부르는 요소가 필수적이다. 이 영화는 그러한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소설의 재미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과연 그런 극적 요소를 통해 짜인 소설의 플롯이 과연 박힌 듯한 우리 인생보다 더 재밌고 교훈적이며 기록의 가치가 더 큰가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준다.

죽음이 주는 단절과 허무는 임팩트가 있다. 그러나 삶이 주는 연속성

은 ‘그 다음엔?’이란 긴장감이 있다. 죽음의 임팩트는 결국 긴장의 해소로 이어지며 소설은 끝난다. 삶의 미래성은 긴장의 연속이며 계속된다.

결국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모를 일이다. 우리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마침표를 찍기 전 반점과 점속사를 통해 순접으로 이어질지, 역접을 이뤄낼지는 삶의 주체인 우리도 알 수 없다. 다만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가길 뿐이다. 때로는 해소되지 않는 긴장에 지칠 수 있으나 죽음이 언제나 효과적인 긴장 해소 수단인 것은 아니다. ‘극복’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을 향해 이 긴장은 점점 더 깊어지는 중이다.

가끔 도저히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스스로들이지만, 그러한 순간에 영화 속 조력자처럼 등장하는 극적 요소를 기다리며, 결작이 아닌 그저 그런 작품일지라도 소수의 누군가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인생에 작가는 없다는 것이다.

배은서(문과대 노문21)

### LATTE고신

Latte 고신은 과거 요맘때, 고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1947년 11월 3일

2009년 8월 31일  
(1620호)

2022년 8월 29일

###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처하는 고대인의 자세

전국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본교에서도 신종플루 예방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

본교는 지난 27일(목) 학교 홈페이지(www.korea.ac.kr)에 신종플루 예방 수칙에 관한 공지사항을 올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지 7일이 안 된 학생들에게 당분간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검사도 시행되고 있으며, Academic English I, II의 개강

일은 다음달 7일로 미뤄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고연전에 대비해 본교 학생지원부와 안암총학생회(회장=정태호·정경대 행정05)도 신종플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지원부 관계자는 “신종플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세대 측과 세부적인 예방 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암총학 이종권 고연전 담당자 역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본교와의 협의를 통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제공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장 내부에 특별한 신종플루 방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몸이 안 좋거나 열이 있는 사람은 고연전 참여를 자제하고 권했다. 본교 보건소 최정심 간호사는 “경기가 잠시 멈출 때마다 화장실에 가 손을 씻고 뒤돌아매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마스크나 휴대용 손소독제 사용도 신종플루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민석 기자 moon@

#코로나\_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요즘 #고대인의 자세

홍정우 기자 scarlet@